



김태균, 300홈런 · 2000안타 ‘코알’

양준혁 이승엽 이어 역대 세번째...우타자로는 최초

한화 이글스의 간판타자 김태균(36)이 개인 통산 300홈런에 이어 KBO리그 역대 11번째 2000안타 달성도 눈앞에 왔다. 28일 현재 KBO리그 통산 1996안타를 기록 중이다.

안타 5개를 추가하면 한화 소속 선수로는 장성호에 이어 2번째, 한화 프랜차이즈 선수로는 최초로 2000안타 고지를 밟는다. 우타자로는 홍성흔(두산 베어스)과 정성훈(KIA 타이거즈)에 이어 3번째가 된다.

김태균은 28일 인천 SK행복드림 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7회초 솔로포를 작렬해 KBO리그 역대 10번째로 개인 통산 300홈런을 달성했다.

힘과 정확성의 척도라 할 수 있는 300홈런과 2000안타를 동시에 달성한 선수는 양준혁 이승엽(이상 삼성 라이온즈)뿐이다.

김태균이 2000안타를 달성하면 역대 세 번째이자 우타자로는 최초의 선수가 된다.

2001년 1차 지명으로 한화에 입단한 김태균은 2001년 5월19일 대전

삼성전에서 솔로 홈런으로 KBO리그 첫 안타를 신고했다. 데뷔 첫 해 82안타, 20홈런을 기록하며 KBO 신인상을 차지했다. 2008년에는 153안타로 개인 첫 세자릿수 안타와 함께 처음으로 30개 이상(31개)의 홈런을 쳤다.

김태균은 일본에 진출한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100안타·10홈런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한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통산 타율도 0.326로 300타석 이상 기록한 선수 중 장효조(0.331)와 손아섭(0.325)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

2009년 4월21일 목동 넥센전에서 1000안타를 돌파한 김태균은 2014년 10월 11일 사직 롯데전에서 1500안타 고지를 점령했다.

김태균의 한 경기 최다 안타는 기록은 5개다. 2004년 5월28일 문학 SK전을 시작으로 2012년 8월1일 잠실 LG전, 2016년 8월7일 대전 NC전까지 모두 3차례 기록했다. 한 시즌 최다 안타는 2016년 기록한 193개다.

KIA 한승혁, 4일 휴식 등판도 OK

올 시즌 본격적으로 선발 투수를 소화하고 있는 한승혁(KIA)에게 4일 휴식 등판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졌다. 우려도 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고 위력적인 투구로 마운드를 지배했다.

한승혁은 27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정규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85개의 공을 던지며 4피안타 2볼넷 1사구 3탈삼진 1실점 역투를 펼쳤다. 팀의 12-1 승

대체적으로 안정된 탄착군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구를 이어갔다. 1회 16개의 공을 던진 것을 제외하면 이후 모든 이닝을 10개 안팎의 공으로 마무리하는 투구 수 조절 능력을 과시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닝 소화력은 올라왔다.

6%이닝 4피안타 2볼넷 3탈삼진 1실점 호투 선발 투수 전업 뒤 첫 4일 휴식 등판 시험대 대체적 안정적 구위 · 이닝 소화력도 ‘만점’

리를 이끈 한승혁은 시즌 3승째를 수확했다.

한승혁으로서는 이날 등판이 시험대였다. 본격적으로 선발 투수로 전업한 뒤 처음 맞이한 4일 휴식 후 선발 등판이었다. 지난 22일 광주 KT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8구 3피안타(피홈런) 2볼넷 3탈삼진 4실점(3자책점) 퀄리티 스타트로 승리를 따낸 바 있다.

앞선 등판에서 투구 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4일 휴식 후 구위와 스타미너를 모두 유지할 수 있을지는 선발 투수 한승혁의 새로운 과제였다.

그러나 한승혁은 새로운 과제를 완벽하게 완수했다. 제구가 한 번씩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리고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한승혁은 152km까지 속구 구속이 찍히면서 스타미너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과시했다. 이날 경기 통틀어 최고 구속은 153km였으나 1회부터 7회까지 비교적 꾸준하게 구속을 유지하며 던졌다고 볼 수 있다. 6회까지 완봉의 페이스로 경기를 풀어나갔던 한승혁이었지만 7회 2사 1,2루에서 실점을 허용한 것이 아쉬움이 남았다.

결국 7회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타선의 넉넉한 득점 지원으로 승리 투수가 되는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한승혁은 이렇게 선발 투수로서 주어진 새로운 과제를 무사히 완수하면서 선발 투수로 한층 성장해 나가고 있다.



김인경, LPGA투어 시즌 첫 승 놓쳐

블빅 챔피언십 2위...호주동포 이민지 통산 4승

김인경(30·한화큐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승을 어렵게 놓쳤다.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건주 앤 아버의 트래비스 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6734야드)에서 열린 블빅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쳤다.

최종 15언더파 273타를 적어낸 김인경은 호주동포 이민지(22·하나금융그룹)에게 1타 뒤져 준우승에 만족했다.

김인경은 LPGA 투어 통산 7승을 차지한 베테랑이다. 올 시즌에는 지난 3월 KIA 클래식(공동 4위)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 준우승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9개홀에서 1타를 줄이는데 그친 김인경은 후반 들어 힘을 냈다. 10번과 11번홀 연속 버디로 순위를 끌어올리더니 13번과 14번홀에서도 버디에 성공. 본격적인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이민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민지와 김인경은 17번홀까지 동타를 이뤘지만



김인경

이민지

이민지가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낚아 승부를 갈랐다.

이민지는 자신의 22번째 생일에 통산 4승째를 수확하는 겹경사를 누렸다.

지은희(32·한화큐셀)는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 공동 10위로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3라운드까지 공동 6위였던 김세영(26·미래에셋)은 2오버파의 부진 속에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로 공동 24위에 그쳤다.

뉴시스

WNBA 박지수, 시애틀전 4분29초...1도움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에서 뛰고 있는 박지수가 정규리그 3번째 경기에서 4분 동안 어시스트 1개를 기록했다. 28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만달레이 베이 이벤트센터에서 열린 시애틀 스톰과의 2018 WNBA 정규리그 경기에서 4분29초 동안 1어시스트를 했다.

이렇게 실책도 2개 범했다. 팀은 98-105로 저 개막 3연패

에 빠졌다.

2쿼터 시작과 함께 코트를 밟은 박지수는 타메라 영의 득점을 돕는 어시스트를 1개 기록했지만 실책 2개와 함께 2쿼터 종료 5분 31초를 남기고 벤치에 들어갔다.

팽팽한 시소게임이 이어진 가운데 이후 출전 기회는 없었다. 라스베이거스는 신인 에이자 윌슨(27점)이 분전했지만 고비를 넘지 못했다. 시애틀은 개막전 패배 이후 3연승을 달렸다.

오타니, 다나카에게 완패...일본인끼리 투타대결서 2삼진 1볼넷

2타수 무안타로 3G 연속 침묵...다나카 60이닝 1실점



2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브롱스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투타 맞대결을 하고 있는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사진 가운데)와 뉴욕 양키스의 다나카 마사히로(사진 가장 왼쪽).

일본의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24·LA 에인절스)가 다나카 마사히로(30·뉴욕 양키스)와의 일본인 투타 맞대결에서 완패했다. 오타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브롱스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양키스와 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2타수 무안타 2볼넷을 기록했다.

28일부터 이날까지 양키스와의 3연전에서 내리 무안타에 그친 오타니의 시즌 타율은 0.297에서 0.291(108타수 30안타)로 낮아졌다. 다만 볼넷으로 두 차례 출루에 성공하면서 8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오타니와 다나카의 투타 맞대결이다. 이들이 메이저리그에서 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프로야구에서 뛰던 2013년 다나카를 상대로 11타수 무안타에 그친 오타니는 5년 만의 재회에서도 안타를 생산하지 못했다.

1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첫 타석을 맞이한 오타니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다나카의 주무기인 스플리터에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오타니는 에인절스가 0-3으로 끌려가던 4회 무사 1루 상황에서 다나카를 상대로 볼넷을 골라냈다. 후속타 불발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에인절스가 1-3으로 추격하던 6회 재차 다나카를 상대한 오타니는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볼카운트 1B2S에서 포디시 스플리터에 헛스윙을 했다.

9회 선두타자로 나서 아롤디스 채프먼을 상대한 오타니는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홈을 밟는 데는 실패했다.

에인절스는 양키스의 마운드를 공략하지 못해 1-3으로 졌다.

오타니와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둔 다나카는 60이닝 동안 8개의 삼진을 속이내며 3피안타(1홈런)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쳐 시즌 6승째(2패)를 수확했다.

‘에이스의 귀환’...다저스 커쇼 6월1일 필라델피아전 선발등판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30)가 부상을 딛고 복귀한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28일(한국시간)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커쇼가 다음달 1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선발 등판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커쇼는 지난 2일 애리조나 다이

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을 기록한 뒤 왼쪽 이두박근 건염 증세를 보여 부상자명단(DL)에 올랐고 이후 재활에만 매달려왔다.

2016년과 2017년 마이너리그에서 재활 등판을 거치고 빅리그에 복귀한 커쇼는 이번에는 재활 등판 없이 곧바로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선

다. 커쇼는 27일 모의 경기에서 4이닝을 던졌고, 이날 큰 이상없이 캐치볼을 소화했다.

로버츠 감독은 “커쇼가 건강하다고 하니 매우 기쁘다.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쇼가 건강하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며 “경기력이 나이지고 있는 상황에서 커쇼가 복



귀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커쇼는 올 시즌 1승째 평균자책점 2.86으로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